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편집인: 우기철 편집국장: 이충국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우리 쓰는 만물 다 주의 것일세 저녁 찬양예배 후에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다. 우리 교회는 지난 한해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I, II, III, IV부 예배를 추수감사예배로 드린다. 또한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는 자체 내에서 축하행사를 가지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금년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교회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다. 잇달아 터지는 대형사고로 온 나라가 뒤숭숭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자성의 소리가 한껏 높아졌었다. 더구나 최근에 터진 전직 대통령의 수권역원 비자금 문제는 국내외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며 터져 나가고 있고, 교회는 지난날 말에 갑작스런 당회장 사면의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 자신

을 돌아보고 이런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이 무엇인가를 찾아 보는 노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어려움과 시련이 그저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그런 일을 통해 우리 각 개인과 공동체를 바꾸시고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음을 깨닫게 될 때 큰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런 어려움들이 사회적으로는 정의로운 사회로의 개혁을 굳건히 하고,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하나되어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에 자성의 기회가 되고 각 개인들은 자신들을 돌아보며 변화되는 기회가 될 때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 갈래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자들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과 자세로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올 한해의 마무리까지 연결시켜야 하겠다.

대입수험생 및 취업생을 위한 특별기도회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때를 맞이하였다. 특히 오는 11월 22일(수)에 대학입학 수능능력시험을 전국적으로 치루면서 교회학교 교동부에서는 대학수험생 및 취업생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오늘 저녁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갖는다.

이 특별 기도회는 김창인 원로 목사가 말씀 및 특별기도를 하며 인도하고 부목사들이 참석자들에게 일일히 안수기도하는 시간도 갖는다.

해당되는 수험생 및 취업생 그리고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예신부, 동문가족초청의 날

예비신랑신부교육부(예신부, 부장: 박인재 장로)는 11월 25일(토) 오후 5시 만나홀에서 예신부 가족초청의 날(Home Coming Day)을 갖는다.

올해 신설되어 이제 11개월째를 맞고 있는 예신부는 8주과정으로 결혼준비에 초점을 맞추어 매주일 오전 11시에 교육관 208호에서 강의와 성경공부를 실시해 왔다.

이번 행사에는 그동안 예신부를 수료한 신혼부부 100여명과 현재 수강중인 30여명의 예비신랑신부 그리고 강사들과 교사들이 자리를 함께 한다.

1부 예배와 2부 교제 및 식사 시간으로 진행되는 본 행사는 경건한 결혼생활을 준비시키는 예신부 교육과정의 결과 확인과 수료생에 대한 재교육차원에서 실시된다.



주님의 사랑 그지없어라

어지신 여호와
우리 주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사랑 그지없도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사랑 그지없도다
지극히 높으신 주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사랑 그지없도다

홀로 엄청난 기적 베푸신 주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사랑 그지없도다
놀라운 지혜 보이셔서 하늘을 지으신 주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사랑 그지없도다
물위에 땅을 두루 펼치신 주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사랑 그지없도다
큰 빛을 지으신 주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사랑 그지없도다
낮을 다스리라 해를 지으신 주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사랑 그지없도다
밤을 다스리라 별과 달을 지으신 주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사랑 그지없도다

우리가 비천한 신세가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 주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사랑 그지없도다
우리를 원수들과 압제에서 건지 자유롭게 하신 주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사랑 그지없도다
살아있는 온갖 피조물에게 먹거리를 주신 주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사랑 그지없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주님의 사랑 그지없도다

충현기도원 전화번호 변경

· 사 무 실 : (0347) 65-5472
66-5425
· F A X : (0347) 65-5425
· 원 장 실 : (0347) 66-3077
· 지도목사실 : (0347) 66-1100

'96년도 서리집사, 권찰 후보교육 미필자 오늘 전부 마쳐야

교회는 '96년도 신입 서리집사 및 권찰 후보자에 대한 교육 및 면접을 지난 11월 15일(수) 오전과 저녁 2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자는 1, 2차 교육에 불참한 사람에 한해 3차로 오늘(11월 19일), 오후 2시 20분부터 시

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면접은 서리집사 후보자만 받는다. 이번엔 후보교육을 받는 사람은 서리집사 610여명, 권찰 370여명 등으로 1,000여명에 달한다.

교육 및 면접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서리집사나 권찰로 임명을 받지 못한다.

3차 교육 및 면접 : 11월 19일(주일) 낮 1부득이한 사정으로 1, 2차 불참을 인정 받은 자

시간	과목	장소	구분	강사
14:20~15:00	제1장 교회의 봉사와 원리	교307호	서집,권찰	장우현 목사
15:05~15:45	제2장 정치기론	교307호	서집,권찰	성봉환 목사
15:50~16:30	면접	교307호	서리집사	*대기장소

선교자에 성탄 선물을 보냅니다.

선교위원회에서는 연말과 성탄절이 다가옴에 따라 해외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보낼 성탄 선물과 성탄카드, 격려편지, 선교권금 등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선교사님 및 그 가족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각부처, 기관, 교구와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 1995년 12월 3일(주일) 17:00까지
- 접수시간 : 매일 오전 9:00 - 오후 5:00
- 접수장소 : 사무국 (총무과)
- 접수종류 : 성탄선물, 성탄카드, 격려편지, 선교권금 기타.
(받으실 선교사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 선교위원회 사무실(TEL 552-8200 (교) 55711)



충현장단

● 김창인 목사의 사편 강해 ●

환난 중에 있는 성도의 저녁 노래

(시 4:1-8)

시편 제4편은 다윗 임금님이 셋째 아들 암살범의 반란에 부딪혀서 도망을 가게 되었을 때 후세의 모략으로 위기를 면하고 기드론 시내를 넘은 후 그날 하루, 그리고 그 이튿날 종일 편안히 지내고 이튿날 밤에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란으로 인해서 서울을 내놓고, 궁궐을 내놓고 도망간 둘째날 밤에 지은 것입니다.

1.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기도가 어떠합니까(4:1)

"내 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4:1)라고 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며" 이 말은 '나를 의롭게 보아주시는 하나님이며'라는 말입니다. '나는 본래 의인이 아니고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의인처럼 취급해 주시고 갑니다' 하는 뜻입니다.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오니' 하나님은 다윗을 의롭게 보아 주시고 다윗의 마음을 도탄 중에서 너그럽게 하여 주셨습니다. '도탄'이라는 말은 피할 데가 없는 진흙구덩이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코끼리가 힘이 장사지만 늪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고 결국은 빠져 죽어버리는, 나올 수 없는 흙구덩이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도탄에 빠진 자입니다. 군인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야 할런지 갈 길도 모릅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낙심할 수 밖에 없는 때이고, 원수에게 저주를 퍼붓거나 신경질을 부릴 수 밖에 없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서 덤비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원수를 저주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사람을 찾아가면 해결해줄 것 같으면서도 문제를 더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몽땅 다 쏟아놓고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해결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집니다.

2. 반역자들에 대한 다윗의 교훈이 어떠합니까(4:2-5)

(1) 자신을 알라

"인생들아"(4:2), 다윗은 반역자들을 '요 못된 놈들아' 그러지 않고, 반역자들을 패함히 여기고 저주하지도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인생들아 이렇게 해라' 하고 사랑과 지혜로 교훈합니다. '인생들아' 하는 이 말은 '야, 너희들이 사람이라는 걸 알아라' 하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군대가 많고 식량이 많고, 계획이 잘 되었다 해도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인

생이 어디있겠니. 태양을 붙들 자가 없고, 태풍을 명령할 자도 없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마음대로 뜯어 고치겠느냐?

(2) 영광을 욕되게 말라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겠느냐"(4:2)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그 권세와 영광은 사울왕을 죽여버리거나 반역을 한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서 영광을 누리는 것인데 아무도 그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얻은 영광이 내 인간의 힘으로, 내 인간의 방법으로 된게 아닌데 너희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해서 되겠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의 영광을 너희들이 욕되게 할 수 있느냐? 태양을 뜨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3) 허사를 경영하지 말라

"허사를 좋아하고 꾀를 구하겠는 고"(4:2)라고 했습니다. 성공할 수 없는 일의 수고, 힘쓸수록 손해가 크게 나는 수고, 누구에게나 유익이 없는 일, 잠깐 있다가 쓰러지는 일, 필경 심판 받는 일 이 허사입니다. 또한 '꾀'이란 위선 행위를 말합니다. 구밀복검, 입에는 꿀이 떨어지는데 배에는 칼로 찌르는 것, 이것이 꾀입니다. 고아원, 양로원, 자선사업 한다는 이름 뒤에 숨어서 제 주머니 채우고, 애국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도적질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 뒤에 숨어서 못된 짓 하는 것이 꾀입니다.

(4)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지어다"(4:3)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첫째, 하나님만 무서워 하는 사람으로 사람은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둘째, 죄악에 때묻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사람, 유혹을 받아도 꾀박을 받아도 죄악에 끌려가지 않고, 사람 앞에 신용시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셋째, 자기보다 약한 자를 돌아보아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돌아보십니다. 절대로 손발 자가 없게 붙들어 주시고 실패하지 않도록 성공을 주십니다.

(5) 멸며 범죄하지 말라

"너희는 멸며 범죄하지 말지어다"(4:4)라고 했습니다. '멸며', 사람이 무서워서 멸면서 죄짓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양심의 명령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떨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무서워 떠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만 양심의 명령이 무서워 떨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 떠는 사람은 죄를 범치 않습니다. 자기 양심의 책망을 들을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이 붙들다가 책망하는 날이 옵니다. 자기 양심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 다른 사람의 매도 안맞고 하나님의 저주도 받지 않습니다.

(6) 하루를 반성하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4:4)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밤중에 조용한 때에, 혼자 있을 때에 '내가

지금은 괴롭지마는 하나님의 약속 받은 다음에 생긴 기쁨이니 곧 현실로 드러날 기쁨입니다. 낙심하고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으나 풍량이 오면 그것 때문에 더 일이 잘될 것입니다. "이 풍량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오늘 바로 살았나' 하고 반성해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고치라는 말입니다. '아들 녀석이 아버지 죽일려고 하는 것, 조용할 때 한번 생각해 봤니? 오늘부터 생각해 봐라'

(7)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4:5)라고 했습니다. "너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사 드리겠다고 갔지? 그것이 의로운 제사냐?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악한 일에 이용해먹은 제사지." 송아지가 살이 찼다고 하나님이 그 제사 받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헌신, 회개하는 제사를 드려야지, 예배 드린다는 간판 뒤에 못된 일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겼으니 그 제사는 우상 섬긴 것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3.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합니다(4:6-8)

(1) 먼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기 전에 먼저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 사람의 말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요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취소서'(4:6)라고 했습니다. 겨울날이 아무리 춥고 얼음이 꽁꽁 얼어도 얼음 밑에 있던 풀이 아주 죽어버리게 아니고, 봄에 봄바람 불어오면 얼음은 녹고 풀은 빠르게 올라와 꽃이 필니다. 그들이 지금 다윗을 볼 때에는 얼음 밑에 있는 풀 한 포기처럼 보여 죽은 것 같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빛으로 다시 움돋을 것입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애에게는 맛있는 먹을 것보다도 장난감보다도 엄마가 최고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한번만 비취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위로를 받겠습니다."

(2) 다음에 찬송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4:7)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육신적으로 말하면 팡야에서 집도 없는 곳에 도망가며 춥고, 떨리고, 배고프고, 위태로운 지경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빛이 한번씩 비취는 걸 체험하니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지금은 괴롭지마는 하나님의 약속 받은 다음에 생긴 기쁨이니 곧 현실로 드러날 기쁨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고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에

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하나님의 약속 받고는 이 만큼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는데 중간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풍량이 오면 그것 때문에 더 일이 잘될 것입니다. "이 풍량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3) 그후에 평안히 쉬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4:8)라고 했습니다. 나는 기도했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찬송했으니까 이제는 자야되겠다고 합니다. 6절은 기도와, 7절은 찬송이고, 8절은 쉬겠다는 말입니다. 이제 다윗은 근심도, 두려움도, 겁도 없고, 미움도, 분한 마음도 없으니, '나 자겠다' 자는데 어떻게? '평안히' 자겠답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 이유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잘 자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잘 수 있는 일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원하는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하지 아니하는 괴로움도 때때로 당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 하나도 없이 억울한 도탄에 빠진 그 자리에서도 마음이 너그러워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내가 헛된 일을 좋아하면서 거짓을 행한 적은 없는지, 헛된 것을 얻기 위하여 아름다운 이름 뒤에 숨어서 딴 짓을 한 적은 없는지 돌아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지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축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시간에는 나 자신을 반성해볼 줄 아는 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헌금을 하든지 의로운 제사, 감사하는 제사, 회개하는 제사, 헌신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빛 밑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평안히 잘 수 있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



대학, 성적, 진로 등 모든 것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한 군수
(목사, 고등부 지도)

▶ 학부모님들에게 고(告)함!

얼마 전 십대들의 쪽지에서 나온 통계를 보았습니다. 전국의 중고등 학생들 1,067명에게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부모님과 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께 들은 말 중 가장 지존심이 상했던 말은 무엇인가?

1위: '타인과 비교하는 것' 이 제일 싫다(33.8%).

"넌 어째 그러니?... 앞집 애는 잘 하던데..., 너 언니 반만큼이라도 닮아 봐라!..."

2위: '무시하는 말' (25.2%).

"가방메고 다니면 다 공부하는거냐?... 네가 뭐 안다고 그래..., 매번 그러냐?"

3위: '성적 운운...' (12.3%).

"무엇을 안해줘서 공부를 못하냐?... 세상에 너같이 공부하는 놈이 어디 있어?..."

4위: '외모에 대한 비판...' (2.1%).

"살 좀 빼라!..., 그만 좀 먹어..."

5위: '성격비판...' (2%).

"어쩌다 저런게 태어나 가지고..., 성격이 그렇게 썩해서 어디다 써 먹냐?..."

2. 부모님께 제일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1위: '개성 좀 존중해 주세요!'

"내 할 일은 제게 맡겨 주세요!, 난 나름대로 주관과 계획이 있다구요!, 저도 인격체란 사실 아세요?"

2위: '이해 좀 해주세요!'

"제발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조금만 우리의 입장에서 봐 주세요!"

3위: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들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저 커서 효도 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시죠!"

4위: '간섭은 그만!'

"간섭 좀 그만 하세요!, 믿어주세요!, 조금만 풀어 주시면 지금보다 훨씬 잘 할 수 있어요!"

3. 부모님이 속 마음을 몇%나 안다고 생각하느냐?

① 91 - 100% 아신다 : 전체의 3%

② 71 - 90% 아신다 : 전체의 12%

③ 51 - 70% 아신다 : 전체의 21%

④ 31 - 50% 아신다 : 전체의 27%

⑤ 11 - 30% 아신다 : 전체의 26%

⑥ 0 - 10% 아신다 : 전체의 11%

이같은 통계를 보면서 저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과 청소년들 사이에 많은 의사소통의 간격이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아직도 부모님들이 극단적인 용어들을 사용함으

로써 청소년들의 가슴에 상처를 내고 있다는 것이며, 셋째는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청소년들을 통제하는 강력한 무기로 성적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균형 속에서도 청소년들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혀 흔들림없이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적어도 세상의 반항적이고 이기적인 세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매 주일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손을 깊이 강하게 잡아주는 일이었으며, 둘째는 전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 주일 엽서를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일들이 벌써 2~3달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많은 학생들이 제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저 또한 그들에게 깊은 가슴을 전달할 수 있



▲ 고등부 학생들의 노방전도 모습

태에 물들지 않는 순수함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아래서 학생들은 늘 부모님들이 자신들을 잘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불만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은 불만이 심각해지면 학교 자퇴, 가출 등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또한 교회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학부모님들에게 고(告)합니다. 이같은 학생들의 반응이 무시되지 않고 조금이나마 학부모님들에게 좋은 생활의 자료가 되어서 더 깊은 사랑의 공동체를 가정에서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학생들에게 고(告)함!

제가 충현교회 고등부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저를 대하는 학생들의 반응에서 저는 무엇인가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경계의 시선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기류였으며, 전혀 마음을 열지 않으려는 차가운 無言의 울타리였습니다. 이것은 큰 장애물이었으며, 앞으로의 사역에도 많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학생들의 가슴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대한 흐름이었음도 알았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가슴을 열어놓을 수 있는 생활의 목회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반응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학생들을 어떻게 한 가슴씩 파고 들어가는 접근을 시도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제게 대단한 고민

은 여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매 주일 200통 가까이 엽서를 쓰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엽서를 잘 받았다고 답장을 보내는 학생들의 반응은 제게 매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잘 먹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많은 말보다도 깊은 가슴을 전달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감히 고(告)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열고 우리의 삶과 영혼을 함께 신앙으로 고민할 수 있는 울타리를 형성해서 충현교회 고등부에는 아무리 패내어도 마르지 않는 생명의 깊은 샘이 터지기를 기원합니다.

▶ 공부 만능주의를 일삼는 사람들에게 고(告)함!

주일이면 예외없이 제 속 마음에 슬픔을 느끼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많은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찾으면서 "왜 누구 누구가 아직도 집에 돌아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얼른 집에 와서 다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되느냐는 것이지요. 부모님들의 이러한 독촉과 반발은 어느 교회인들 예외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같은 부모님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말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 심정을 깊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과연 주일까지도 그래야만 하는지? 어른들은 주일에 예배하며 안식하고 교제하는 공동체의 삶을 누리면서 학생들에게는 왜 공부의 울무에서 자유함을 주지 않으려 하는지? 주일에도 공부에 지쳐서 쫓기다시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집으로 황급히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매우 가슴이 저리도록 아픔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들도 주일에는 편안하게 예배하며 교제를 나누기를 갈망하는데, 과연 대학과 성적은 주일의 신앙적 자유함도 막아야 하는 만능인가? 주일성수 때문에 주일을 쉬면 대학에 진학하기가 어렵기 때문인지요? 게다가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에 고등부에 출석하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어른 대예배만 참석시키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부때문에 주일에도 편한 마음을 갖지 못한 분들에게 감히 고(告)합니다. 대학, 성적, 진로 등 모든 것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주일성수를 잘 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지 않을 줄로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도 이런 학생들이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것으로 믿습니다.



▲ 지난 11월 16일(목) 군전도회에서 제1군단예하 아전포병단 칠봉교회의 봉헌예배를 드렸다. 우리나라 최초의 통나무 교회를 건축하였다.

토·막·소·식

◆ 영아부는 오늘(11/19) 추수감사절을 맞아 십계명 외우기대회를 개최한다. 아빠와 엄마가 아기에게 반복하여 들려주어 외우도록 하며, 영아부 학생, 학부모, 교사가 반별로 함께 참가한다.

◆ 초등1부는 성경이야기 대회를 연다. ① 사자굴 속의 다니엘 ②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③ 솔로몬의 지혜 중에서 발표하며 11월 26일(주일) 오전 8시 50분, 교육관 307호에서 예수사랑 초청잔치로 모인다. 믿지 않는 친구를 기도로 준비하여 전도하기를 바라고 있다.

실업인전도회, 11월 특강 전인건강과 인격치유

실업인 전도회(회장, 남선우 장로)에서는 11월 월례회경 특강을 가진다. "전인건강과 인격치유"라는 제목으로 예방의학의 권위자이신 황성주 박사(서울의대 졸업, 의학박사, 예방의학 전문의, 현 사랑의 클리닉 병원 원장, 국민일보 성서건강학 연재 후 현재는 사랑의 치유일지 연재중)를 강사로 모인다. 회원들은 부부동반으로 참석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비회원도 참여할 수 있다.

- 일시: 1995년 11월 21일(화) 오후 7시
- 장소: 교회 본당 1층 베다니홀
- 참석대상: 전 중헌교회 성도

◆ 중등3부는 오늘 반별 과일콘테스트를 치른 후 세곡동 소재 '참빛 장애자 선교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쌀도 함께 모으고 있다.

◆ 고등부에서는 중창페스티벌을 갖기로 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11월 25일(토) 오후 3시 갈릴리홀에서 예선으로 모이며, 결선은 12월 3일, 10일 1부 예배 후에 있다.

◆ 대학부는 영어예배부와 함께 이번 추수감사절(11/19)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옷가지나 생필품(옷, 양말(특히 남자용), 그릇) 등을 11월 19일 오전까지 대학부로 가져와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며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 청년2부는 성경암송대회를 11월 19일(주일)에 열기로 하고 준비중이다. 시편 42, 46, 51, 80, 96편중 택일하여

장년1부 특강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신앙자세 강사에 이원설 박사

장년1부(부장 손경수 장로)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며 심령의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며 이원설 장로(전 한남대 총장, 역사학 박사)를 모시고 특강을 실시한다.

- 제목: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신앙자세
- 장소: 장년1부실 (교육관 407호)
- 일시: 11월 19일(주일) 오후 12시 30분

암송하며 또한 11월 26일(주일)에는 초청전도집회의 날로 정하고 각 반 회원 1명이 1명씩 초청하기로 하고 기도하며 준비중이다.

◆ 사랑부에서는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한 성도로 사랑부에서 자원봉사할 사람을 찾고 있다. 매주일 사랑부 학생들을 집에서 교회까지, 교회에서 집까지 데려다 주는 일을 하게 된다.

신구위원장회의에서 성수주일·찬송가 부르기

지난 11월 13일(월)에 모인 신구위원장 회의에서 김창인 원로목사는 교회학교 각 부에서 집회시간에 부르는 복음성가 일변도에서 찬송가를 부르되 가능하면 암송하여 부를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그래서 중헌교회는 '찬송을 많이 부르는 교회'로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또한 성수주일과 관련하여 교회일꾼들은 주일에는 꼭 식당을 이용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 에바다부(농아부)는 12월 3일(주일) 창립8주년을 맞아 기념주일로 지키며 '감사와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화찬양제와 사진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 특별히 수화찬양제에서는 초등부, 중등부의 수화찬양과 울동, 고등부의 성극, 성인반의 찬양과 성극을 수화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시간을 갖는다. 성도들의 많은 참석으로 기쁨을 같이하기를 바라고 있다.

◆ 가브리엘찬양대는 11월 23일(목) 목요연습시간에 조별찬양대회를 연다. 찬양대원을 조별로 묶어 하나됨과 연합을 위하여 준비하였다고 한다.

화재당한 교우들과 사랑을 나누시다 생활용품을 보내줍시다!

지난 11월 4일, 서울 왕십리 시장에 일어난 갑작스러운 화재로 우리 교회의 일곱 가정이 피해를 당했다. 화재 중에 가재도구를 다 불살라 버린 교우들을 위해 교회에서는 생활용품을 수집하고 있다. 이들의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며 풍성한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장소: 사무국(교육관 1층)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11/19(주일) 수협생 및 취업생을 위한 특별기도회
· 11/20(월) 교회 기관 및 부서장 회의
· 11/21(화) 교역자 기도회
2. 중헌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 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3.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4.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소서.
5. 제2교육관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서만수 선교사의 건강이(신장과 간)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6.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위한 회개와 기도의 운동이 불붙게 하소서.
7.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담임목사를 속히 허락하소서.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일본 유병세 평신도선교사



먼저 저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확고한
삶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일 기도를 통하여 모교회와 교동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의 내외에게 오늘까지 건강과 능력 그중에도 주의 종으로써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100명 입소자와 63명 직원들에게 격주로, 금요일 기도회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저들의 냉소함과 비웃음을 받을지라도 주께서 디모데에게 같이 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딤후 1:7)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당연히 일본선교의 따갑을 맺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선교내용을 간략히 적습니다.

7월 2일 삿포르교회에서 예배 봉사를 했고, 5일 모교회 만나와 주보, 주간중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에는 Nursing Home 교회서 창조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개인생명 건강의 원천됨을 설교했습니다. 28일에는 미국 유국남 목사의 중헌세계연구소 'Diaspora' 선교지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서로 찬양했습니다.

9월 15일에는 경로회 입소자에게 주께서 주신 영생을 설교했으며, 24일에는 삿포르교회에서 예배시 대표기도를 하였습니다. 9월 30일에는 모교회 만나와 주간중헌 뒤늦게 받았는데 하나하나 읽으며 모든 소식들이 더욱 반갑고 영

적인 감동을 해갈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희 내외는 매주 삿포르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립니다. 워낙 이곳의 영적 현실이 매마른 박토인지라 어떤 큰 행사나 사역도 중요하지만 처해진 환경에서 먼저 저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확고한 삶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이런 구별된 믿음의 행위를 통해 전도의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뜨거운 기도로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주의 은혜가 항상 모국교회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전도의 열매로 승리케 하시고, 지금 직장의 책임자와 직원 몇명이 복음 전도함에 불평하고 따돌려 방패 수단이 있사오니 주께서 종에게 더욱 능력과 지혜로 같이하사 승리케 하소서.
2. 건강도 주옵시고 영육간에 염려없게 하옵소서.
3. 모교회의 부흥과 사명 다하게 하사 영광받아 주옵시고 모국이 하루 속히 주 안에서 통일케 하사 이산가족의 한을 풀게 하옵소서.

일본에서 유 병 세

